

아라



언니 나 오늘 회사에서 좀 흔들렸어

주아



뭔데 무슨 일 있었어?

오후 8:12

아라



옆자리 선배가 점심 내내 자랑을 하는 거야 삼성전자
레버리지로 며칠 만에 얼마 벌었다고 근데 진짜 액수가 좀
셧어 ㅋㅋ

주아



아 단일종목 레버리지 그거 요즘 진짜 말 많더라

아라



나도 조금만 해볼까 싶더라고 어차피 삼성전자잖아 망하는
것도 아니고

주아



그 말이 제일 위험한 말이야 ㅋㅋㅋ

잠깐만 내가 이번 강의에서 본 숫자 하나 알려줄게 그 상품
회전율이 113%래

아라



회전율? 그게 뭔데



주아

그 상품에 들어있는 돈이 하루에 얼마나 사고팔리는지를 보는 비율이야 들어있는 돈보다 하루 거래된 돈이 더 많으면 100%가 넘어 113%면 사람들이 하루에 최소 한 번은 샀다 팔았다 한다는 뜻이야

아라



하루에?? 한 번을 다?



주아

응 평균이 그래 비교할 게 있어야 감이 오지

코스피 전체를 두 배로 따라가는 레버리지 상품들 있잖아 그건 회전율이 30% 정도야 그것도 일반 주식보다는 훨씬 높은 건데

아라



근데 종목 하나짜리는 113이면



주아

응 3.7배야 그리고 그 상품 들고 있는 사람 중에 92%가 개인이야

아라



열에 아홉이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이라는 거네

 주아

응 기관도 외국인도 별로 없어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있어 빚내서 주식 사는 돈 있잖아
신용융자 그게 38조 5천억이래 역대 최고

아라 

그게 다 레버리지로 간 건 아닐 거 아니야

 주아

다는 아니지 근데 생각해봐 레버리지 상품 자체가 이미
빚내서 투자하는 거랑 같은 효과야 두 배로 움직이니까
거기다 진짜 빚까지 내서 사면?

아라 

빚에 빚...

 주아

그치 ㅋㅋ 강의에서도 딱 그렇게 말해

아라 

근데 언니 나 좀 억울한 게 있는데

이거 미국에도 있는 상품이잖아 미국은 훨씬 옛날부터
있었다며 거긴 왜 이런 난리가 안 나?

 주아

오 그게 이번 회차 질문이 딱 그거였어 질문 주신 분이 그걸
물었거든 미국은 되는데 왜 한국만 문제냐고

아라



거봐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네

주아



응 그리고 강사님도 그 지적이 타당하다고 먼저 인정해
부동산에만 돈이 쏠려있는 것보다 증시로 가는 게 낫지
않냐는 것도 일리 있다고

아라



오 그럼 결론이 뭐야

주아



근데 답이 재밌어

질문에 깔린 전제가 사실이 아니래

아라



엔 무슨 전제

주아



미국 퇴직연금 401k 알지 거기서 미국 사람들이 ETF를
실시간으로 막 사고판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실제로는 거의
안 그래

아라



그럼 뭐 하는데

주아



대부분 뮤추얼 펀드에 넣어놔 그리고 10년 20년을 그냥 뒀

아라



진짜? 그냥 물어둔다고?

주아



응 은퇴하고 돈 쓸 일 생기면 그때 조금씩 파는 정도야
실시간으로 사고파는 사람은 증권사랑 따로 특약 맺은
일부뿐이야 예외지 대세가 아니야

오후 8:27

아라



어 그럼 우리가 지금 하려는 건

주아



응 그게 포인트야 강사님 표현 그대로 옮기면 "우리가
미국보다도 훨씬 더 단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뜻입니다"

아라



주아
"우리가 미국보다도 훨씬 더 단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뜻입니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앞질러 가는 거네

주아



오 정리 잘하네 ㅋㅋ

 1

아라



근데 그거 우리 퇴직연금도 해당돼?

오후 8:29

 주아

우리나라 퇴직연금이 한 500조야 그중에 130조는 증권사에 있어서 지금도 실시간 매매가 돼 나머지 365조는 은행이랑 보험에 있어서 안 되고

아라 

아 그럼 지금 열려있는 게 130조

 주아

응 그리고 정부가 열려고 검토하는 게 365조 쪽이야

아라 

지금 열린 것의 거의 세 배잖아

 주아

그래서 강사님이 유튜브에서 그걸 비판한 거야

아라 

음... 근데 그게 진짜 시장을 흔들 정도야?

오후 8:32

 주아

그건 이미 숫자로 나왔어 단일종목 레버리지 나오기 전이랑 후를 비교했는데 삼성전자 하루 변동 폭이 4.4%에서 6.8%가 됐어 SK하이닉스는 5.1에서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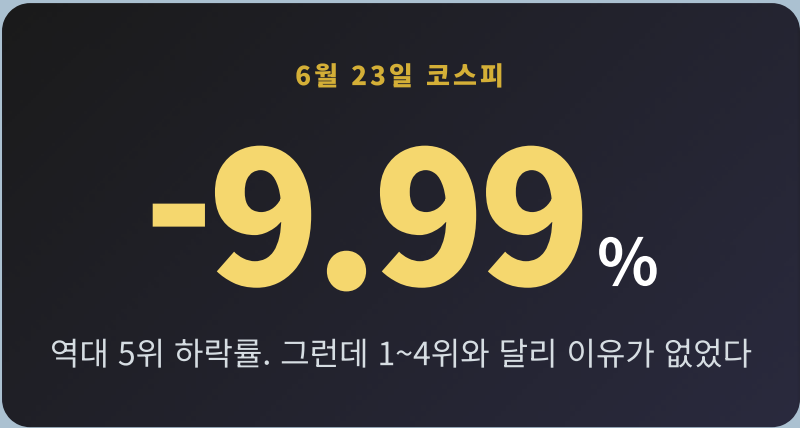
아라 

4.4도 이미 큰 거 아니야?



주아

맞아 강사님도 그거 이미 진짜 높은 거라고 해 ㅋㅋ 근데 거기서 더 올라간 거지



아라



어 이거 나 기억나 뉴스에서 봤어

오후 8:35



주아

근데 그날이 왜 특이하냐면 역대 하락률 1등부터 4등까지는 다 이유가 있었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란 전쟁 이런 거 응 근데 6월 23일은 그런 게 없었어

아라



그럼 왜 빠진 건데



주아

이유를 대는 사람은 많았대 근데 강사님이 이렇게 말해 "이유가 일곱 여덟 가지라는 건 이유가 특별히 없었다는 뜻입니다"

아라



아 ㅋㅋㅋㅋ 뭔지 알겠다 진짜 이유가 있으면 하나로 딱 말하지



주아

그치

그리고 요즘 우리 시장 하루에 5% 오르내리는 게 흔해졌잖아

아라



그건 그래 나도 요즘 놀라지도 않아



주아

근데 나스닥은 3%만 빠져도 비상 걸려 응 거긴 그게 드문 일이야

아라



우리는 그게 일상이 된 거고... 근데 언니 그럼 미국은 왜 안 그래

오후 8:41



주아

세 가지가 다르대 첫째로 미국은 시장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전 세계 돈이 다 모이는 데니까 그리고 위험을 막을 수단도 다양해서 레버리지에만 매달릴 이유가 없어

아라



우리는?



주아

우리는 애초에 시장이 그만큼 두껍지 않아 거기다 지금 우리 증시를 떠받치는 게 사실상 HBM 하나야 응 수백 종목이 있는데 개 하나가 다 압도해 근데 하필 거기에 종목 하나짜리 레버리지를 붙여놓은 거지

아라



아... 제일 세계 움직이는 데다가

주아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같이 흔들리는 거야

오후 8:44

아라



근데 그게 다야? 시장 크기 차이?

주아



아니 사실 제일 구조적인 건 세 번째야 세금

아라



세금?

주아



미국은 주식으로 번 돈에 세금을 내 근데 얼마나 오래 들고 있었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

아라



오래 들면 깎아준다고?

주아



응 1년 안에 팔면 최대 37%까지 내

아라



헐 100만원 벌면 37만원?



주아

응 그럴 수 있어 근데 1년을 넘기면 20% 15% 0%로 내려가

아라



와 그럼 진짜 안 팔고 버티겠다

오후 8:47



주아

그치 거기선 오래 들고 있는 게 절세 방법이야 그래서 장기 투자가 미덕이 된 거고

아라



우리나라는?



주아

우리는 주식 양도세가 아예 없어

아라



어 그럼 하루에 열 번을 사고팔아도



주아

세금상 불이익이 없지

아라



아 그래서 다들 그렇게 굴리는구나



주아

응 그래서 우리나라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이 닷새래

오후 8:50

아라



닷컴새?? 일주일도 안 돼?

주아



응 근데 여기서 진짜 반전이 있어

아라



뭔데

주아



세대별로 보면 젊은 사람들이 더 길어

아라



엥 우리가?

주아



응 2030이 한 7일 정도 근데 4050이 나흘이야

아라



잠깐만 엄마 아빠 세대가 우리보다 단타를 더 한다고???

주아



ㅋㅋㅋㅋ 그래 지금은 그래 강사님도 본인 나이대라면서 얘기해 근데 여기에 하나가 더 겹쳐

레버리지 상품엔 성질이 하나 있어 오래 들고 있으면 녹아

아라



녹아? 주가가 떨어져서?



주아

아니 그게 무서운 부분이야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와도
손해가 날 수 있어

아라



엥 그게 무슨 소리야



주아

오르내림이 심할수록 그 사이에 조금씩 깎여 그래서 원래
며칠 이상 들고 있으면 안 되는 상품이야

아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보유가 닷새라며



주아

그치

 1

그래서 이 상품이 우리 시장에서 주력이 될 길이 열려 있는
거야

아라



뭔가 사람 탃하기 쉬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급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주아

강사님이 거기서 딱 선을 그어 "이게 국민성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제도의 문제거든요" 사람이 유별난 게 아니라 판이 그렇게 짜여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는 감독하는 쪽에서도 같은 말을 하기 시작했어
금융감독원장이 그랬대 효과는 적고 부작용은 큰
상품이라고 증권사만 배 불리는 결과라고도 하고 더 센
말도 있어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고

아라



ㅋㅋㅋㅋㅋ 드러누워서 근데 왜 그때는 안 막았대



주아

그게 강사님이 답답해하는 부분이야 지식한방에서 제일
먼저 이 문제를 짚었거든 그다음에 언론이 따라 쓰고
이제야 당국이 인정하기 시작한 거야 근데 그때 한두 개가
나온 것도 아니야 16개가 한꺼번에 나왔어

아라



열여섯 개???



주아

응 ㅋㅋ 그래서 더 답답한 거지

아라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은 뭐였어

세 개 물어봤다며

주아



금리 얘기야

아라



아 그거 나도 궁금했어 우리 회사 사람들도 대출 금리 올랐다고 다들 난리야

주아



질문이 좀 날카로웠어 정부가 일부러 금리를 올려서 부동산을 잡으려는 거 아니냐고

아라



오 그럴듯한데? 금리 오르면 집 사기 힘들어지잖아

주아



그치 타이밍도 묘하게 맞물렸고 근데 강사님 답은 그렇게 보기 어렵다야

오후 9:06

아라



왜?

주아



일단 원리로 보면 어떤 정부도 장기 금리 오르는 걸 안 좋아해 기준 금리 내려놓고 장기 금리가 튀면 효과가 다 사라지거든

아라



아 힘들게 내려놔는데 헛수고 되는 거네

주아



응 트럼프도 미국 10년물 금리가 4.5% 넘으면 갑자기 순해진대 ㅋㅋ 그만큼 무서운 숫자라는 거지 그리고 숫자를 보면 더 확실해

미국 10년물은 작년 5월이나 지금이나 거의 똑같아 근데 우리는 작년 5월에 2.7%였던 게 4.3%대까지 갔어

아라



어 그럼 미국 때문이 아니네

주아



그치 우리만 올랐어

아라



그럼 원인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잖아

주아



맞아 세 가지래 첫째가 국민연금

아라



국민연금이 왜

주아



국내 주식 비중을 엄청 늘렸거든

작년 말 목표가 14.4%였는데 지금 실제로는 30%가 넘어

아라



두 배가 넘잖아

주아



응 그동안 코스피가 연초 대비 116% 올랐거든

아라



근데 그게 금리랑 무슨 상관이야

주아



국민연금이 가진 돈은 정해져 있잖아 주식을 두 배로 늘리면 그만큼 다른 걸 줄여야 해

아라



아 채권을 줄인 거구나

주아



응 국채를 사주던 제일 큰 손이 사라진 거야 사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

아라



싸게 팔아야지... 아 그게 금리 오르는 거야?

주아



맞아 채권은 값이 떨어지는 게 금리가 오르는 거야

 1

아라



오 나 이해했어

오후 9:14



주아

둘째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아라



우리가 뭘 했는데



주아

예금을 깨서 주식으로 옮겼잖아 근데 우리가 은행에 넣은 돈은 은행이 채권 사는 데도 써 그러니까 우리가 예금을 깨면 은행도 채권을 팔아

아라



어 그럼 또 채권 사줄 사람이 줄어드네



주아

응 거기다 빚내서 주식 사는 사람이 늘었어 그건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늘었다는 뜻이야

아라



음 그게 왜 금리를 올려?



주아

강사님 비유가 진짜 쉬워

배추 사려는 사람이 두 배가 되면 배춧값이 오르잖아 돈 빌리려는 사람이 두 배가 되면 돈값이 올라 그리고 돈값이 금리야

아라



아!!! 금리를 돈값이라고 하니까 확 와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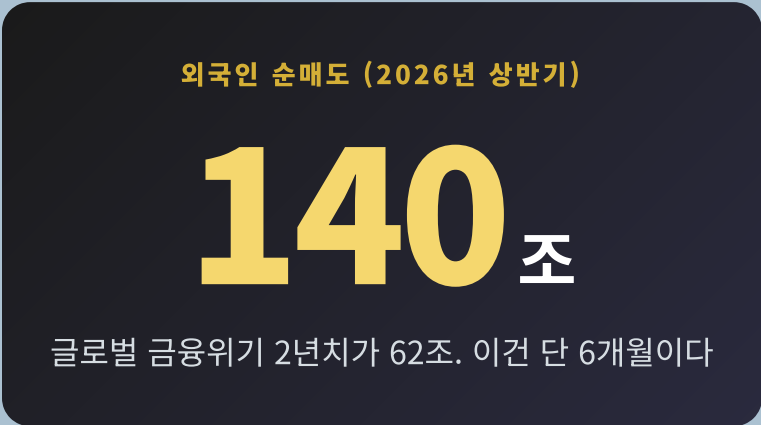
주아

그치 ㅋㅋ 나도 이 비유 좋더라

아라



그럼 셋째는?



아라



잠깐만 6개월에 140조?

오후 9:20



주아

응 금융위기 때 2년 동안 판 게 62조였어 코로나 때는 25조

아라



근데 이번엔 반년에 140조...



주아

경제부총리가 국정보고에서 밝힌 숫자래 강사님도 그전엔 120조쯤으로 알고 있었대

아라



그래서 환율이 그렇게 오른 거구나



주아

응 1530원을 넘었어 금융위기 이후로 제일 높아

아라



어쩐지 나 여행 계획 세우다가 포기했잖아 ㅠㅠ

주아



근데 여기서 고리가 하나 더 있어

환율이 불안하면 외국인이 우리 국채도 안 사

아라



왜? 이자는 주잖아

주아



이자 4% 받아도 원화 가치가 4% 떨어지면 본전이야

아라



아 달러로 바꿔서 가져가야 하니까

주아



응 10% 떨어지면 6% 손해고

아라



그럼 아예 안 사겠네

주아



그래서 국채 사줄 세 주체가 동시에 빠진 거야 국민연금
기관 외국인

아라



세 명 다 빠지면 그건 답이 없지 그럼 진짜 정부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 거야?

 주아

오히려 반대로 하고 있어 국채 발행 물량을 줄였어 금리 낮추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라 

왜 그렇게 급한데

 주아

금리가 오르면 한계에 몰린 기업들이 무너지거든 근데 자금 시장은 그 하나로 안 끝나

아라 

무슨 뜻이야

 주아

IMF 때 한보철강이 무너지니까 멀쩡한 회사들한테서도 은행이 돈을 회수했어

아라 

아 너도 위험할지 모른다고 의심해서

 주아

응 그게 위기의 방아쇠가 된 거야 그래서 금리 얘기가 결국 우리 얘기가 돼

국고채는 나라에서 제일 안전한 금리야 그게 1.5%p 올랐으면 주택담보대출은 2%p 넘게 올랐을 거래

아라 

대출 있는 사람들 진짜 힘들겠다

 주아

그럼 소비가 줄고 기업은 투자를 미루고 약한 기업은
돈줄이 막히고

아라 

다 연결돼 있네 근데 언니 마지막 질문은 뭐야

오후 9:32

 주아

일본 얘기야

아라 

아 일본 주식 요즘 계속 오른다며 거기도 외국인이
나갔다가 돌아온 거 아니야?

 주아

질문도 딱 그거였어 근데 강사님이 전제부터 다르다고 해
아베노믹스가 2012년에 시작했는데 그 다음 해에
외국인이 오히려 왕창 샀어

아라 

옹 나간 게 아니라?

 주아

응 판 건 그 뒤 2014년부터 2022년까지고 다시 크게
들어온 건 2023년부터야

아라 

그럼 얘기가 완전 달라지는데



주아

응 순서가 반대야

오후 9:35

아라



그럼 일본 주식은 왜 오른 건데



주아

이건 좀 놀라운 얘이라 따로 들려줄게

EXPERT GUEST

일본 시장을 오래 본 분석가

"일본은행이 2013년부터 2024년까지 ETF 형태로 약 70조 엔어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시가총액의 약 7%입니다. 55개 종목은 최대주주가 일본 중앙은행입니다. 문제는 그 돈의 출처입니다. 세금으로 걷은 돈도, 국민이 맡긴 연금도 아닙니다. 중앙은행이 새로 찍어낸 돈입니다."

아라



잠깐만 돈을 찍어서 주식을 샀다고?

오후 9:38



주아

응 강사님도 놀라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라고

아라



55개 회사의 최대주주가 중앙은행이라는 것도 좀 근데 우리 국민연금도 비슷한 거 아니야?



주아

비율만 보면 우리가 더 높아 시총의 8% 정도야

아라



어 그럼 똑같은 거네



주아

근데 성격이 달라 국민연금은 우리가 낸 돈으로 사는 거고
일본은행은 새로 찍은 돈으로 산 거야

아라



아 출처가 다르구나



주아

응 그리고 찍은 돈에는 대가가 따라와

오후 9:41

아라



무슨 대가



주아

엔화 가치가 무너졌어 2012년 초에 1달러가 75엔이었는데
지금 161엔이야

아라



음 그게 얼마나 큰 건지 감이 잘 안 와



주아

강사님이 우리 돈으로 바꿔서 설명해줘 1달러에 1500원
하던 게 3300원이 된 거랑 같대

아라



헐 그럼 해외여행은 그냥 포기지



주아

동남아 물가가 체감상 2.2배가 되는 거야

아라



내가 지금 여행 접은 거랑 똑같은 상황이 일본 사람들에게 몇 년째 있는 거네

주아



응 그래서 강사님이 이렇게 정리해

"주가는 올랐는지 모르지만 일본 사람 전체는 가난해지는,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라



주가는 올랐는데 사람은 가난해진다... 그게 가능해?

주아



그게 이번 회차에서 제일 날카로운 부분이야 닷케이가 2020년부터 6년 동안 155% 올랐어

아라



엄청 오른 거잖아

주아



근데 그건 엔화로 잤을 때야 달러로 재면 63%야

아라



어? 같은 지수인데?

오후 9:47

 주아

응 같은 지수 같은 기간 뭘로 재느냐에 따라 절반 이하가 되는 거야 게다가 63%도 방어된 숫자래 일본은행이 160엔을 마지노선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했거든 안 했으면 200엔 넘고 상승률은 20~30%였을 거라고 봐

아라 

그럼 거의 안 오른 거잖아 뭔가 월급 오른 줄 알았는데 물가가 더 오른 느낌이네

 주아

어 그 비유 진짜 정확해

 1

명목으로는 올랐는데 실제로는 아닌 거

아라 

근데 언니 그럼 우리는?

오후 9:50

 주아

그게 이 회차의 결론이야 일본은 중앙은행이 우리는 국민연금이 증시를 떠받쳤어 방식은 다른데 대가는 같아

아라 

통화 가치

 주아

응 엔화도 원화도 역대급으로 약해졌어

아라



근데 우리 주가는 올랐잖아

주아



그래서 강사님이 명목 신고가라고 불러 숫자로는 최고인데
그 밑에서 돈의 가치가 빠지고 있다는 거지

아라



그리고 원래 우리는 원화 약해지면 주가도 떨어지지
않았어?

오후 9:53

주아



맞아 그게 원래 순서였어 근데 지금은 뒤집혔대 주가가
올라도 환율이 오르고 떨어져도 환율이 올라

아라



이래도 저래도 원화가 약해진다고?

주아



응 그래서 국민연금이란 한국은행이 붙들고 있는 거야

아라



그거 계속할 수 있는 거야?

주아



그 질문이 핵심이지 돈 가치가 흔들리면 물가가 올라
물가가 오르면 금리가 또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 경제가
나빠지고

아라



그럼 다시 주가로 돌아오겠네

주아



결국은 그렇게 된다고 봐

오후 9:56

아라



음 그럼 언니 우리는 뭘 해야 하는 거야? 레버리지는 하지 말고 달러라도 사줘야 하나

주아



아 그건 강의에 없어 음 이번 회차에서 강사님이 하는 얘기는 전부 정부한테 하는 얘기가 국민연금이 주식에서 국채로 돌아가야 한다 금리랑 환율을 안정시켜야 한다 증시 부양 말고 진짜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

아라



아 우리보고 뭘 사라는 얘기가 아니구나

오후 9:58

주아



음 그래서 나도 그 선은 안 넘으려고 강의가 말 안 한 걸 내가 붙이면 그건 내 말이지 강사님 말이 아니잖아

아라



그건 맞다 근데 그럼 좀 답답하긴 하네 ㅋㅋ

주아



대신 알게 된 건 있잖아 선배가 자랑한 그 상품이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

아라



어 그건 확실히 알겠어 하루에 한 번 이상 사고파는 사람들이 모인 데라는 거

주아



그리고 오래 들면 녹는다는 것도

마지막으로 강사님이 남긴 말이 있는데

아직 한두 달 기회가 있대 정책을 바꿀 기회

금리랑 환율이 잡혀야 물가가 잡히고 물가가 잡혀야 사람들이 지갑을 열고

그래야 주가 오른 게 진짜 우리 삶에 도움이 된다는 거지

아라



주가만 올라선 소용없다는 거네

주아



응 그게 이번 회차 전체를 한 줄로 줄인 거야

아라



언니 오늘 얘기 진짜 도움 됐어 선배한테 아는 척은 안 할게
ㅋㅋㅋ

주아



ㅋㅋㅋㅋ 그게 제일 현명해 다음 강의 올라오면 또 풀어줄게

오후 10:03

정리 · content-forge · 2026-09-09